“화두 타파 육바라밀행으로 중생구제”

조계사, 9월 25일 ‘선명상 법회 3’
진우 스님 대중들에 ‘이뭣꼬’ 화두
“괴로움 벗어나는 수행법 간화선”
30일까지 영진 스님 등 법사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진우 스님이 조계사 특별법문에서 이뭣꼬 화두를 던지고 마음 평안을 강조했다.

“화두를 깨친다는 것은 부처님법을 모두 아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화두 타파하면 근심, 걱정, 괴로움이 한 점 없게 됩니다. 걸림 없는 행동으로 육바라밀을 행하면 완벽한 깨달음으로 중생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계사 특별법문 법사로 나서 대중들에게 ‘화두’를 갖고 일념할 것을 당부했다. 2024 불교도 대법회를 앞두고 선명상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설하며 분별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다스릴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서울 조계사가 9월 25일 개최한 ‘조계사 선명상 특별법회 시즌3 : 선명상의 꽃 간화선’에서 법상에 올랐다. 이날 스님은 분별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다스릴 것을 강조하면서 선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깨달음의 핵심에 대해 “손톱만큼도 불편함이 없는 평안”이라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분별심이 새기는 감정 덩어리가 없어야 괴로움이 사그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있기에 기분이 좋고 나쁜 고락의 과보가 반복된다”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두 가지 생각과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이 명상의 진면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정만 다스릴 수 있어도 삶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설명한 스님은 “우리가 선명상을 해야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고 깨침에 있어 최고의 수행법은 간화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화선의 화두는 부처님처럼 마음을 깨치고 내는 소리이니, 화두를 깨친다는 것은 부처님 법을 모두 알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법회동참 대중들에게 이뭣꼬(是甚麽) 화두를 던진 진우 스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적멸이 되고 이것이 계속 되면 선이 된다”면서 “괴로움이 없고 생로병사도 없으며 윤회도 삼독심도 없는 평안하게 유지되는 마음이 화두 타파며 그것이 곧 간화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육바라밀을 강조하기도 했다. 스님은 “내가 하는 행동이 보시행, 지계행, 인욕행, 정진행, 선정행, 그리고 지혜행”이라면서 “여섯 가지를 깨친 이들이 하는 보살행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사는 진우 스님을 시작으로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 스님(9월 26일),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9월 27일), 미국 일리노이주 Palmo 센터 대표 직메 린포체(9월 29일),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9월 30일)의 특별법문 및 선명상 실참을 이어갈 예정이다.

진우 스님 “갈항사지 석탑 환지본처 협력”

9월 23일, 송언석 의원 · 김충섭 김천시장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보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1962년 지정)의 김천시 이전 계획안을 보고 받고 환지본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9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과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김충섭 김천시장의 예방을 받고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김천 이전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사진〉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남면 오봉리 옛 갈항사터에 동·서로 세워져 있던 두 탑으로 2단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도굴해 반출을 시도했지만 발각돼 1916년 경복궁으로 옮겨져 관리되다가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이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천시는 이전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3일 ‘국보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김천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11월 중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2005년에는 갈항사지 주변 토지를 매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발굴조사와 학술대회를 개최, 국가유산 사적 지정 후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의원은 “최근 석탑이 국립대구박물관으로 이전 추진하려는 것을 보류시킨 상태”라면서 “석탑이 원위치인 김천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원장스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동진 김천시 경제관광국장로부터 이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진우 스님은 절차와 규정들에 큰 관심을 보이며 “성보가 본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갈항사지 석탑은 김천 유일 국보로, 성보인 만큼 종단의 주도가 절실하다”면서 “석탑 이전과 함께 갈항사지터가 잘 가꿔진다면 선명상센터 건립 등도 추진해 김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10일, 제23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종회의원 현무 스님의 대표발의로 ‘갈항사지 삼층석탑 김천 이전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임은호 기자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 11월 5일 개회

하반기 구성, 예산안 등 다뤄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11월 5일 개회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기 2568년도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종책모임 회장단 제7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11월 5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19일까지로 안건접수는 10월 29일, 종책질의는 10월 31일 마감한다.

정기회에서는 △제18대 중앙종회 후반기 원 구성의 건 △종법 제·개정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불기 2569(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임은호기자

여야 대표 만난 진우 스님 “국민 위한 정치를”

추석 전후 두 대표 예방서 강조
“의료대란 중재 나설 것” 약속도



진우 스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예방을 받고 “국민 위한 정치”를 당부 했다.

추석을 전후해 조계종 총무원을 찾은 여야 대표에게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의료 대란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의료대란 이해관계 조정하는 데 대화 타협이 아닌 충돌을 해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 종교계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종지협이나 불교계 차원에서 노력해보겠다.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이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부와도 대화를 시도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이재명 대표와 정치인들에게 ‘중도’에 대해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정치라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 왔고, 현실 자체가 상대적이라 어쩔 수 없으나, 잘 융합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교의 중도가 구현되면 서로 불이익도 없다”며 “여든 야든 어느 지도자가 되든 융합과 융섭을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를 마친 9월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진우 스님은 “국민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정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들의 평안을 생각하며 정치해 달라”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좀 더 절실한 마음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비공개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을 새겨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의료대란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도 “의료대란과 관련해 여야 의정 협의체의 대화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했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신중일 ·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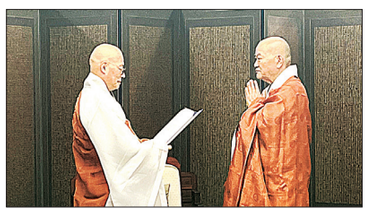
조계종 법계위원에 정우 대종사 위촉

총무원장 진우 스님 9월 25일 위촉장 전달

조계종 법계위원에 구룡사 회주 정우 대종사가 위촉됐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정우 대종사에게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의 원로 스님을 법계위원으로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종단의 막중한 위치에 있는 위원회이기에 큰스님들이 돌봐줘야 종단 위상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홍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8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주지, 군종특별교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회주 소임을 보고 있다.



법계는 스님들의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자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이다. 법계위원은 총무원장 제청으로 종사급 이상 비구스님 가운데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각 법계의 품서와 특별전형, 포상법계, 법계무효 등을 관장하며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있다. 임은호 기자

